

ABS, 118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1150달러로 상승 후 중국구매 거의 없어 ... 금호 가동률 조정할 듯

아시아 SM(Styrene Monomer) 가격이 톤당 85달러 폭등하면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수출 가격이 CFR CMP(Chinese Main Port) 톤당 1180달러까지 상승했다.

4월 둘째주 CFR CMP 가격이 톤당 1150달러로 최근 4년 사이 최고가격을 기록했던 ABS는 4월 둘째주 SM 가격상승으로 수출가격이 추가 인상됐다.

ABS 무역상은 “4월 둘째주 CFR CMP이 톤당 1150달러까지 인상된 후 중국의 구매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CFR CMP 1180달러가 과연 중국에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BS 생산기업들은 중국이 2월 초부터 2004년 합성수지 가격인상에 맞서 버티기를 지속하던 중 3월 중순부터 재고문제로 재구매에 나섰던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이 조만간 ABS 구매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가격인상 요인이 원재료인 SM과 부타디엔(Butadiene) 가격강세에 따른 것으로 생산코스트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ABS 시장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SM 가격폭등으로 ABS 플랜트의 가동률 조정 또는 가동을 중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호석유화학은 2월 ABS 가동률을 30% 감축 가동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S 무역상 관계자는 “현재 중국이 ABS의 가격흐름을 파악하는 시기로 추가인상이나 가격하락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바로 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과거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버티기를 한 것을 감안할 때 낙관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ABS 생산기업들은 중국 ABS 수입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공급하는 ABS의 60-70%가 범용 그레이드이다. LG화학과 제일모직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난연성 그레이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제일모직이 인지도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화학은 범용 그레이드는 LG 용성공장에서, 특화 그레이드는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화동지역은 LG 용성이, 화남지역은 LG화학이 영업영역으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국내 ABS 생산기업인 LG화학, 제일모직, 금호석유화학은 특화 그레이드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한국 BASF는 범용 그레이드 중심의 저가전략을 펼치는데 중국시장에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공급되는 ABS 중 범용은 가격변동이 심한 반면 특화 그레이드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특화 그레이 가격은 PC ABS Alloy가 CFR CMP 톤당 2000달러대, 초내열 그레이드가 CFR CMP 1500-1600달러, 난연 그레이드는 1300-1400달러 수준에 공급된다.

PS(Polystyrene)도 ABS와 비슷해 GPPS가 CFR CMP 톤당 1010-1020달러에서 4월 셋째주 1050-1060달러까지 인상됐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화학저널 2004/04/19>